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

总主编 张光军

朝鲜—韩国 文学史_下

◎ 金英今 编 著 ◎ 张光军 审 订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解放军外语音像出版社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

总主编 张光军

朝鲜—韩国 文学史 下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北京

解放军外语音像出版社
洛阳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朝鲜—韩国文学史. 下 / 金英今编著. —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0.9
综合韩国语教程 / 张光军总主编
ISBN 978-7-5135-0131-6

I. ①朝… II. ①金… III. ①朝鲜语—阅读教学—教材 ②文学史—朝鲜、韩国—教材
IV. ①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0) 第 182019 号

universal tool · unique value · useful source · unanimous choice



悠游网—外语学习 一网打尽

www.2u4u.com.cn

外研社旗下网站, 打造外语阅读、视听、测试、共享的全方位平台

登录悠游网, 您可以:

- 阅读精品外语读物, 独有资源, 涵盖广泛, 学习必备。
- 观看双语视频、名家课堂、外语系列讲座。
- 多元外语测试, 检测外语水平和专项能力, 获得外语学习方案。
- 外语资源共享, 网友互动, 小组讨论, 专家答疑, 语言学习无疑难。
- 网站推出众多精彩大礼包, 可通过积分换购。

贴心小提示:

刮开封底刮刮卡, 获得网站积分充值验证码, 即可到网站注册、充值。

出版人: 于春迟

责任编辑: 尚明明

装帧设计: 孙莉明

出版发行: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社址: 北京市西三环北路 19 号 (100089)

网址: <http://www.fltrp.com>

印刷: 北京市鑫霸印务有限公司

开本: 787×1092 1/16

印张: 20

版次: 2010 年 9 月第 1 版 2010 年 9 月第 1 次印刷

书号: ISBN 978-7-5135-0131-6

定价: 39.90 元

* * *

购书咨询: (010)88819929 电子邮箱: club@fltrp.com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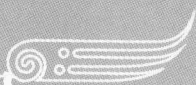
联系电话: (010)61207896 电子邮箱: zhijian@fltrp.com

制售盗版必究 举报查实奖励

版权保护办公室举报电话: (010)88817519

物料号: 201310001

出版说明



随着中韩两国交流的日益频繁,近年来中国国内迅速掀起了韩国语学习的热潮,开设韩国语专业的院校和报考韩国语专业的学生迅猛增加。但由于国内的韩国语教材和教辅资料相对匮乏,给广大韩国语学习者的学习和韩国语教师的授课都带来了很大的困难。为了促进国内韩国语教学的发展,为广大教师提供权威、系统、实用的学习资源,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推出了“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是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包含了“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精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泛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朝鲜-韩国文学史”、“综合韩国语教程 韩国文学作品选读”等几大系列共三十余册,构成了完备的一体化的教学解决方案。目前已经出版的有“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泛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韩国文学作品选读”,正在陆续出版的有“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精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朝鲜-韩国文学史”等。

“综合韩国语教程 朝鲜-韩国文学史”作为“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之一,分为上下两册。每册按照朝代更替划分学习大单元的同时,为了突出文学史发展脉络,又以历史上的各类体裁作为学习小单位,在描述各种体裁的发生、发展和消亡的过程中,讲述相关的重要作家和主要作品。本套教材具有如下特色:

1. 每五到六课设为一个单元板块,按照文学体裁介绍朝鲜-韩国文学知识。
2. 练习形式多样,便于学生通过练习加深对课文重点知识的理解。
3. 为授课教师提供练习参考答案及其他相关教辅资料,便于教师备课和授课。

本套教材既适合韩国语专业中、高年级学生使用,同时也适合其他韩国语中、高级阶段的学习者使用。衷心希望本套教材能够帮助大家提高韩国语水平,全面了解朝鲜-韩国文学面貌,为今后的学习打下更好的基础。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0年6月



总序

随着中韩关系的不断发展,我国韩国语学习者的数量也在不断增加。各种各样的韩国语教材也应运而生,呈现出百花齐放、百家争鸣的景象。我们编写的这套“综合韩国语教程”,也必将为这一绚丽的景象增添姹紫嫣红。

“综合韩国语教程”因为其科学性、规范性、系统性、实用性,被评为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入选该系列教材的各门课程的教材,都在现实教学中使用过,有些还在比较大的范围内使用了多年,经历了实践的检验。在广泛征求老师和学生的意见后,编者又进行了相应的修改。因此,这是一套比较成熟的教材。

总主编从事韩国语教学已有三十余年,编写出版各类韩国语教材近二十部,发表与韩国语教育相关的论文近百篇,并获得过国家级教学成果奖等各类奖项。参加教材编写的各校老师,都是既有丰富教学经验,又有教材编写经验的骨干教师。此外,该教材还聘请了国内外韩国语学界著名学者担任顾问。因此,这套教材的质量是可信的。

本教程在编写过程中,参考了国内外各类参考资料和大量相关教材,在此,谨对这些资料和教材的作者表示衷心的感谢。

诚挚地敦请各位专家、学者、老师、同学们对教材提出宝贵的意见。希望通过大家的共同努力,使我们的教材日臻完善。

总主编 张光军

2010年6月于古都洛阳



前言



前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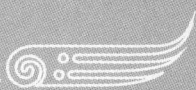
作为文学的历史，文学史是按照一定的评价标准梳理历史上各种文学现象的产物。既然是一种历史，我们就可以参照历史学家的划分方法，按照朝代更替分阶段叙述历史上的文学现象。但是，文学又有它自己内在的发展轨迹，文学的发展脉络和朝代更替变化并不完全一致，文学史需要找出更加符合文学发展脉络的叙述单元。历史上的各类文学现象往往表现为各种不同的体裁类型，可以说这些不同体裁的生灭更替构成了生动的文学发展史。有鉴于此，这套教材在按照朝代更替划分学习大单元的同时，为了突出文学史发展脉络，又以历史上的各类体裁作为学习小单位，在描述各种体裁的发生、发展和消亡的过程中，讲述相关的重要作家和主要作品。至于有一些横跨两个朝代甚至三个朝代发展而来的体裁，则根据其在文学史上的重要性，有些按朝代分别叙述，有些则按照其鼎盛期来确定它在学习单元中的位置。

这套教材分上下两册，凡六大单元三十五课。每个单元开始的时候，都给出相应的历史年表以确定其大的方位，而每一课都是按照其发生年代以从古至今的顺序排列的。课文的编排，主要由课文原文、课文译文、单词注释和练习题组成，同时适时加入背景知识、作者（作家）档案、原典选萃、掌故逸闻等板块以增加学习的趣味性。为了提高文学史学习的效率，课文给出了完整的译文；单词注释给出的是课文中出现之单词的惟一含义；练习题侧重语言、知识和能力的培养，给出相应的填空、问答和思考题；背景知识主要补充历史文献方面的知识；作者（作家）档案介绍重要作者的生平及其文学成就；原典选萃和掌故逸闻旨在增强感性认识，以巩固学习效果。教材还根据内容需求，附有丰富的插图，并附有练习题参考答案及参考文献。

朝鲜和韩国由同一个民族组成，语言相通，文学亦有千丝万缕的联系，从公元前后到二十世纪中叶的文学，是朝鲜和韩国共同的文学遗产，且占他们文学发展史的绝大部分。在此意义上，单独的朝鲜文学史或者韩国文学史是不存在的。出于这种考虑，这套教材将朝鲜文学和韩国文学放在一起加以描述，只是在当代文学部分才分开叙述。当然，朝鲜和韩国在语言习惯上有一些细微的差异，鉴于目前我国学习韩语的学生占绝对多数，因此整体叙述遵从韩国的语言规范，而引用朝鲜文学内容时则遵循朝鲜的语言习惯，以作区别。



目录



제1단원 근대전환기 문학 近代转型期的文学.....	1
제1과 창가와 신체시 唱歌与新体诗	2
제2과 신소설과 계몽소설 新小说与启蒙小说.....	14
제3과 서정시와 모더니즘시 抒情诗与现代主义诗歌.....	30
제4과 민족주의 계열의 소설 民族主义系列小说	49
제5과 카프 계열의 문학 卡普系列文学.....	67
제2단원 당대 한국문학 当代韩国文学.....	85
제6과 전통파의 서정시 传统派的抒情诗	86
제7과 현대파의 모더니즘시 现代派的现代主义诗歌.....	105
제8과 현실파의 민중시 现实派的民众诗歌	120
제9과 리얼리즘 소설 现实主义小说	136
제10과 모더니즘 소설 现代主义小说	155
제11과 대중소설 大众小说	171
제3단원 당대 조선문학 当代朝鲜文学.....	185
제12과 송가 颂歌	186
제13과 서사시 叙事诗.....	200
제14과 서정시 抒情诗.....	214
제15과 수령형상문학 领袖形象文学	230
제16과 사회주의 혁명문학 社会主义革命文学	247
제17과 반제반봉건 통일지향의 문학 反帝反封建统一主题文学.....	262
연습문제 참고답안 练习题参考答案.....	279
참고문헌 参考文献	304
后记	305



제1단원

근대전환기 문학

近代转型期的文学



근대전환기 역사

근대전환기 (1897년 ~ 1948년, 도음지 서울)
대한제국 (1897년 10월 12일 ~ 1910년 8월 29일)
일제강점기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임시정부 (1919년 9월 11일 ~ 1948년 8월 15일)
군정기 (1945년 9월 9일 ~ 1948년 8월 15일)



제1과 창가와 신체시 唱歌与新体诗

한국의 시문학은 갑오경장(1894) 이후 근대시의 전형적 형태로 나타난다. 근대적 사회 제도의 확립, 신문과 잡지의 발간, 언문일치운동과 외국문학의 번역과 간행 등으로 신문학 형성의 문이 열리면서 한국의 시가는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로 변모되어 나타나게 된다. 개화공간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안의 것과 밖의 것, 내 것과 남의 것이 공존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치는 가운데 서서히 새로운 감수성과 표현 양식을 형성하는 시기였다.

개화가사는 개화기의 새로운 계몽사상을 전통적인 가사형식에 담은 시가로서 주로 4·4조에 의해 개화의지와 항일정신의 고취,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의 교리나 사상을 나타내었다. 가사의 유형은 분절되고 가창에 맞도록 후렴구가 있는 것과, 4·4조를 주로 한 장편가사의 두 가지가 있다. 작품으로는 최제우의 《용담유사(龍潭遺詞)》, 이중원의 《동심가》, 신재효의 《괘씸한 서양 뽕놈》 등과 기타 애국가사, 종교가사가 있다. 이중원의 《동심가》는 합심하여 문명을 개화할 것을 노래한 4·4조의 개화가사로서 1896년 5월 26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작품이다.



잠을 깨세, 잠을 깨세,/ 사천 년이 꿈속이라,/ 만국이 회동하여/ 사해가 일가
로다.//…… 못에 고기 부러 말고/ 그물 맺어 잡아 보세./ 그물 맺기 어려우랴/
동심결로 맺어보세.//

-이중원, 《동심가》

창가는 개화기에, 개화가사와 찬송가의 영향으로 노래로 불려질 것을 전제로 제작된 시가이다. 가창을 전제로 한 시가형식이므로 가사에 따른 악보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890년부터 1910년까지 주로 《독립신문》에 발표되었던 창가는 민족혼의 고취와 학문의 권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작품으로는 최남선의 《경부(京釜)철도가》를 비롯하여 《세계 일주가》, 《조선유람가》, 《권학가》 등이 있다.

생존경쟁 당차 시대에/ 국가흥망 내게 달렸네/ 열강의 대우를 생각할수록/
노예 희생의 치욕뿐일세/ 이천만 동포 우리 형제야/ 차시가 하시며 차일이 하
일코/ 6대주 대륙의 형편 살피니/ 약육강식과 우승열패라/ 국권을 회복하고 동
포구제는/ 우리들 쌍견상에 달린 의무라/ 혈루를 취쇄하고 분발심으로/ 실지
상 학문을 연구합시다/ 일신이 영귀하고 일국 흥귀함은/ 학문 일사박에는 다시
없네//

-《학도가》



창가 《학도가》는 “약육강식과 우승열패”가 국제질서의 본질임을 말하면서 자주적인 국권의 수호를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하고, 그러한 힘은 “실지상 학문”에 힘씀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국권회복과 동포구제의 사명을 양 어깨에 짚어진 청년학도들이 더욱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자는 것이 《학도가》의 주제이다.

창가는 《경부철도가》, 《학도가》 등과 같이 개화예의 의지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표현하였는데 그 형식이나 내용이 복잡성을 띠게 되어 신체시 형성에 교량적 구실을 하였다.

신체시는 19세기말 20세기초의 근대전환기에 창가의 전통적 율격의 정형성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새로운 시형에 새로운 내용을 담아보고자 한 의식적 노력의 산물이다. 신시라고도 하는데 고전시가의 율격에서 벗어나 산문화한 자유시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시가양식이다. 문명개화, 신교육, 자주독립, 남녀평등, 민족주의, 애국주의가 주요내용이다. 신체시의 주요 작가로는 최남선(崔南善), 현상윤(玄相允) 등이 있다. 1908년, 최남선(1890년~1957년)은 종합잡지 《소년》을 창간하고 창간호에 《해(海)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였다.



처……르썩, 처……르썩, 썩……아./ 때린다, 부신다, 무너뜨린다./ 태산 같은 높은 뒀,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신다, 무너뜨린다./ 처……르썩, 처……르썩, 척, 우르릉, 콧.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처럼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소년의 씩씩한 기상을 노래하였다. 한국 최초의 신체시로서 의성어의 사용으로 장쾌한 기분을 살리는 자유스런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7·5조나 4·4조의 창가나 개화가사의 율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신체시는 전통적인 시형식과 현대시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김억의 《봄은 간다》와 주요한의 《불놀이》 등의 자유시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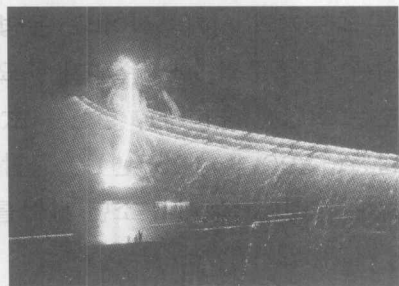
신체시의 과도기적 모색 이후 서구시의 유입과 더불어, 1910년대 중엽의 《학지광》과 《태서문예신보》 등을 통해 현대시의 실험적 작품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신체시라는 과도기적 시형에서 운율과 형식이 자유로워지고, 그 내용도 예술적 가치를 추구한 자유시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김억의 《야반》, 《봄은 간다》 등과 서구의 번역시 및 시론이 밑바탕이 되어 창작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주요한의 《불놀이》가 《창조》지에 발표됨으로써 정립된다.



저어라, 배를, 멀리서 잠자는 능라도까지, 물살 빠른 대동강을 저어 오르라.
거기 너의 애인이 맨발로 서서 기다리는 언덕으로 곧추 너의 뱃머리를 돌리라.
물결끝에서 일어나는 추운 바람도 무엇이리오, 괴이한 웃음소리도 무엇이리오,
사랑 잃은 청년의 어두운 가슴 속도 너에게야 무엇이리오, 그림자 없이는 ‘밝음’
도 있을 수 없는 것을 - // 오오, 다만 네 확실한 오늘을 놓치지 말라. // 오오,
사로라, 사로라! 오늘 밤! 너의 발간 햇불을, 발간 입술을, 눈동자를, 또한 너의
발간 눈물을..... //

-주요한, 《불놀이》

주요한(1900년~1979년)의 《불놀이》는 상실감과 고뇌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시로서 《창조》 창간호(1919년)에 발표되었다. 유창한 산문적 가락과 상징적인 소재의 선택, 정형성의 탈피 등으로 시가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불놀이》와 같은 자유시로부터 한국문학은 문학적인 여러 요소를 아울러 갖춘 본격적인 시문학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가사를 배격하고 교술적인 성향을 버리면서 서정시의 본령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개 이 시점을 전후하여 정형시와 자유시의 구분이 생기며, 이때의 정형시란 노래의 가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음악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한다.



현대적인 시가문학은 언어의 조탁, 비유에 의한 이미지 형성, 시적 긴장에 의한 내재율, 시행의 조형적 배치, 생략과 압축, 고도의 상징 등 여러 실험적 시도를 통해 부단히 갈고 닦아 세련되고 수준 높은 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单词注释 단어해석

가창(歌唱): 歌唱

갈등(葛藤)하다: 冲突, 冲撞

공존(共存)하다: 共存

과도기(過渡期): 过渡时期

교리(敎理): 敎义

구현(具現)하다: 体现

밑바탕: 底子, 根本

배격(排擊)하다: 排斥

본령(本領): 核心, 本质

선을 보이다: 亮相, 披露

성향(性向): 趋向, 倾向

씩씩하다: 豪迈, 蓬勃向上

악보(樂譜): 乐谱

약육강식(弱肉强食): 弱肉强食

욕구(慾求): 欲望, 欲求

우승열패(優勝劣敗): 优胜劣败

율격(律格): 格律

이해(理解)하다: 理解

장쾌(壯快)하다: 痛快, 豪壮

조탁(彫琢): 雕琢

탈피(脫皮): 摆脱, 打破

후렴구(後敍句): 副歌

최남선



최남선(崔南善, 1890년~1957년)은 사학자이며 문인이다. 호는 육당(六堂)이고 자는 공육(公六)이며 아명은 창흥(昌興)이고 세례명은 베드로이다. 자습으로 한글을 깨쳐 1901년(광무 5)부터 《황성신문》에 투고했고 이듬해 경성학당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배웠다. 1904년 황실유학생으로 소년반장(少年班長)이 되어 도일(渡日), 도쿄(東京)부립제일중학에 입학했으나 3개월 만에 귀국했다가 1906년 다시 도일, 와세다(早稻田)대학 고등사범부 지리역사학과에 입학하여 유학생회보인 《대한흥학회보(大韓興學會報)》를 편집하여 새로운 형식의 시와 시조를 발표했다.

1907년 모의국회 사건으로 반발하는 한국인 학생 총동맹휴학으로 중퇴하고, 이듬해 귀국하여 자택에 신문관(新文館)을 설립하고 인쇄와 출판을 겸했으며 다음해 잡지 《소년》을 창간하여 논설문과 새로운 형식의 자유시 《해(海)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는 한편 이 광수의 계몽적인 소설을 실어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1909년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청년학우회 설립위원이 되고, 이듬해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를 창설하여 고전을 간행하고 20여 종의 육전소설(六錢小說)을 발간했다. 1913년 다시 《아이들 보이》를 창간했으나 이듬해 폐간되자 다시 《청춘(靑春)》을 발간하여 초창기 한국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19년 3·1운동 때는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민족대표 48인 중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음해 가출옥했다. 1922년 동명사(東明社)를 설립, 주간지 《동명(東明)》을 발행하면서 국사 연구에 전념하여 《조선역사통속강화》를 연재했다. 1924년 《시대일보(時代日報)》를 창간, 사장에 취임했으나 곧 사임, 이듬해 《동아일보(東亞日報)》의 객원이 되어 사설을 썼다.

1927년 총독부의 조선사편찬위원회 촉탁을 거쳐 위원이 되고 이때부터 친일 행각을 자행하였다. 1932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가 되었다. 1938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만몽일보(滿蒙日報)》의 고문으로 있다가 1939년 일본 관동군이 세운 건국대학(建國大學) 교수가 되었고, 귀국 후 1943년 재일조선인 유학생의 학병지원을 권고하는 강연을 하기 위하여 도쿄로 건너갔다. 광복 후 우이동(牛耳洞)에 은거, 역사논문 집필에 전념하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소되어 1949년 수감되었으나 병보석되었다. 6·25전쟁 때 해군전

* 《소년》은 근대적 종합잡지의 효시이며 후에 이 잡지가 창간된 11월 1일이 '잡지의 날'로 정해졌다.



사편찬위원회 촉탁이 되었다가 서울시사(市史) 편찬위원회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그 후 국사관계 저술을 하다가 뇌일혈로 작고했다.

최남선의 문학세계는 다음과 같이 대략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소년》·《청춘》을 통해 서양의 고전이나 시를 번역·번안하여 변혁기에 있던 한국 근대문학에 새로운 방향을 제공했다. 특히 서양의 산문시 및 일본의 신체시와 창가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식을 선보였는데, 《소년》에 발표한 《구작3편(舊作三篇)》(1909. 4) 등의 신체시와 《가을 뜻》(1908. 11)·《소년대환》(1908. 12) 등의 창가, 《흑구자(黑軀子)의 노래》(1908. 11)·《맑은 물》(1909. 6) 등의 가사 및 시조 외에도, 《경부철도가》·《세계일주가》·《조선유람가》 등의 장편 창가들을 창작·보급하는 데 힘썼다.

둘째, 외국문학의 수용과 이를 통한 근대 시문학의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조선 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시조 태반으로의 조선 민성과 민속》 등의 논문을 발표해 시조의 본질을 밝혔고, 고시조를 정리한 《시조유취》(1928)를 펴내 시조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에 힘썼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몸소 실천하여 한국 문학사상 최초의 창작 시조집인 《백팔번뇌(百八煩惱)》(1926)를 펴냈다. 그의 시조 문학의 이론화 작업은 당시 활발하게 전개된 계급주의 문학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문학을 기초로 삼았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이병기·이은상 등과 함께 현대 시조문학의 개척자로 평가받았다.

셋째, 수필을 통해 역사 연구로 확립한 ‘조선정신’ 또는 ‘조선주의’라는 민족주의 문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1925년 전국문화기행을 떠나 기행문인 《심춘순례》를 연재했고, 유물탐사반으로 백두산에 오른 감회를 쓴 《백두산근참기(白頭山觀參記)》는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의 근원이 백두산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1928년 금강산을 유람한 후에 《금강예찬》을 발표했고, 그밖에 《반순성기(半巡城記)》 등의 기행수필을 통해 조선의 자연을 조선정신을 드러낸 모습이라 설명했으며, 이러한 업적으로 수필문학 분야에서도 남다른 공적을 남겼다.

넷째, 한문투나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는 문체변혁을 시도했다. 즉 《소년》 등의 잡지를 통해 새로운 문장을 소개하고 구어체 중심의 근대적인 신문장 운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청춘》에서는 근대 문학의 새로운 주체들을 찾기 위해 현상문예응모란을 마련하여 신진문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저서에 창작 시조집 《백팔번뇌(百八煩惱)》, 시조집 《시조유취(時調類聚)》, 역사서 《단군론(檀君論)》, 《조선역사》, 《삼국유사해제》, 《조선독립운동사(朝鮮獨立運動史)》 등 다수가 있다.

김억

김억(金億, 1896년~?)은 시인이고 평론가이다. 처음 이름은 희권(熙權), 뒤에 억(億)

으로 개명하였으며, 필명으로 안서 및 안서생(岸曙生), A.S., 또는 본명 억(億)을 사용하였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다. 오산학교(五山學校)를 거쳐 1913년 일본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영문과에 진학하였다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그 뒤 오산학교(1916)와 숭덕학교(崇德學校) 교원을 역임하였고, 동아일보사(1924)와 매일신보사 기사를 지냈으며, 한동안 《가면(假面)》을 편집하기도 하였다. 1934년 중앙방송국에 입사하여 부국장까지 지냈고, 8·15광복 후 육군사관학교와 항공사관학교 및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 출강한 적도 있었다. 6·25 당시 피난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그의 계동집에서 납북되었다. 그 뒤의 행적은 확실하지 않다.



문단 활동으로는 1914년경에 《학지광(學之光)》에 시 《이별(離別)》·《야반》·《나의 적은 새야》·《밤과 나》 등을 발표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1918년 《태서문예신보(泰西文藝新報)》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번역과 소개 및 창작시를 발표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 뒤 창조 및 폐허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창조(創造)》·《폐허(廢墟)》·《영대(靈臺)》·《개벽(開闢)》·《조선문단(朝鮮文壇)》·《동아일보》·《조선일보》 등에 시·역시(譯詩)·평론·수필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김소월(金素月)의 스승으로서 김억은 자신도 뒤에 민요조의 시를 주로 많이 썼다. 민요시운동에도 적극성을 보였던 그는 1920년대 한국 근대시 형성기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였다. 1923년에 간행된 창작시집 《해파리의 노래》는 한국 최초의 근대시집이다. 저서로는, 시집 《해파리의 노래》 이외에도 《불의 노래》(1925)·《안서시집》(1929)·《안서시초》(1941)·《먼동이 틀제》(1947)·《안서민요시집》(1948) 등이 있으며 역시집으로 《오뇌의 무도》 이외에 타고르의 시집 《기탄자리》(1923)·《신월(新月)》(1924)·《원정(園丁)》(1924)·《잃어진 진주》(1924)가 있다.

주요한



주요한(朱耀翰, 1900년~1979년)은 시인·언론인·정치가이다. 호는 송아(頌兒)이고 필명은 벌꽃·낙양(落陽)이며 평양 출신이다. 소설가 요섭(耀燮)의 형으로 1912년 평양숭덕소학교, 1918년 일본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중등부, 1919년 동경의 제1고등학교를 거쳐, 1925년 상해(上海) 후장대학(滬江大學)을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 중에 상해의 독립신문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귀국 후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을 지냈고, 일제



말기에는 실업계에 투신하여 화신상회(和信商會)의 중역으로 있었다. 한편, 1937년 수양동우회사건 이후 전향한 주요한은 1940년대에는 조선문인협회·조선문인보국회·조선임전보국단·조선언론보국회·대의당(大義黨)·대화동맹 등 수많은 친일 단체의 간부를 역임하였다. 학병권유 연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였다. 광복 후에는 흥사단(興土團)에 관계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특별위원, 대한무역협회 회장, 국제문제연구소장, 민주당민의원 의원 초선 및 재선, 4·19 당시는 부흥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을 역임하였고, 5·16 후에는 경제과학심의회 위원, 대한일보사 사장, 대한해운공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부흥리·8·도봉지 내내공부부 이학사업 이대송병병중 반사대인 이대송 병 메이지학원 재학 시절에 학우들과 회람지를 발행한 것을 계기로 시인이 되기를 소망하였고, 그때 스승이었던 가와지(川路柳虹)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하여진다. 그는 미국 시인 휘트먼(Whitman, W.)과 일본 낭만파 시인들의 영향을 받아 시를 썼지만, 그들과는 달리 전원과 자연을 바탕으로 하여 맑고 차분한 서정의 시세계를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특색은 첫 시집 《아름다운 새벽》(1924)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 경향은 초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제 말기에는 제5회 조선예술상 문학상 수상시집인 《손에 손을(手に手を)》(박문서관, 1943)을 비롯한 다수의 친일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광복 후에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 관여함에 따라 그에 관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 근대시의 형성기에 그 선구자적 공적을 남긴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9년 한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았다. 시집으로는 《아름다운 새벽》 외에, 《3인시가집(三人詩歌集)》(三千里社, 1929)·《봉사꽃》(世宗書院, 1930) 등이 있고, 일반 논저로는 《자유의 구름다리》(泰成社, 1959)·《부흥논의》(大成文化社, 1963)·《안도산전서(安島山全書)》(三中堂, 1963) 등이 있다.

原典选萃 작품읽기

학도가(學徒歌)

學徒(학도)야 學徒(학도)야 靑年 學徒(靑年學徒)야
壁上(벽상)의 掛鐘(괘종)을 들어 보시오
소년이로(少年易老)에 학난성(學難成)하니
일촌광음(一寸光陰)도 불가경(不可輕)일세
청산 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만 광채나고
낙락장송(落落長松) 큰 나무도
깎아야만 동량(棟梁)되네



경부철도가

최남선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 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같은 형세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외 친소(親疎) 다같이 익히 지내니
조그마한 댄 세상 절로 이루었네

练习题

연습문제

1. 빈 자리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 ① 한국의 시문학은 갑오경장(1894) 이후 ()의 전형적 형태로 나타난다.
- ② 개화공간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안의 것과 밖의 것, 내 것과 남의 것이 ()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치는 가운데 서서히 새로운 ()과 표현 양식을 형성하는 시기였다.
- ③ 창가는 개화기에, 개화가사와 찬송가의 영향으로 ()로 불러질 것을 전제로 제작된 시가이다.
- ④ 창가 《학도가》는 약육강식과 ()가 국제질서의 본질임을 말하면서 자주적인 국권의 수호를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